일 주 문



내비둬 콘서트

성우 김제 금산사 주지 스님은 6월 25일 경내에서 인디음악가 '인니언 수니'를 초청해 내비둬 콘서트를 개최했다.



백범 김구 추모다례재

원경 공주 마곡사 주지 스님은 6월 26일 대광보전 앞 추모단에서 '백범 김구선생(원종 스님) 67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탄자니아학교 기자재 지원

원정 (재)한가람청소년재단 이사장 스님은 6월 20일 (재)아름다운 동행에 탄자니아 보리가람학교 기자재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美보병협회 성모리스 훈장

심산 부산 흥법사 주지 스님은 6월 20일 미국 워싱턴 알링턴국립묘지서 동양인 최초로 미 육군보병협회 '성 모리스' 훈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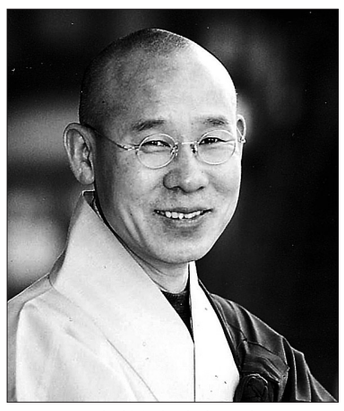


부산파라미타 사무실 개소

백명숙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은 6월 22일 부산 서면문화로 유원골든타워 1206호에서 단독 사무실을 개소했다.

제31회 不二賞 덕신 스님·주경미

분야별 상금 2000만원…
시상식 7월 5일 서울 신라호텔



실천분야 덕신 스님



연구분야 주경미 전문위원

여성불자모임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제정한 '불이상(不二賞)' 제31회 수상자로 실천분야에 좋은벗풍경소리 회장 덕신 스님, 연구분야에 주경미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이 선정됐다.

실천분야 수상자 덕신 스님은 교계 최초로 장애인 포교단체 원심회를 창립, 다양한 점자불서와 수화교재를 제작하고 한글 및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봉사 · 포교활동에 힘 쓴 점이 공로로 인정됐다. 특히 현재 좋은벗풍경소리 회장으로 활동하며 찬불가 발전과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 불교문화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69년 출가한 덕신 스님은 1977년 법주사 승가대, 1986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국장 · 사회국장 · 문화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구 대륜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다. 1992년 조계종 포교대상 특별상, 2002년 세계인권선언기념 국민훈장 동백장, 2014년 제2회 불교음악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구분야 수상자 주경미 전문위원은 불사리 장엄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불교 금속공예분야 발전에 공헌한 점이 인정됐다. 뛰어난 외국어 능력과 광범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인도와 서역, 동남아 등지를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외 학계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 불교학회가 주목하고 있는 학자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이다.

주 전문위원은 1991년 서울대 공예과 금속전공 미술학사, 1995년과 2002년 동대학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전공 문학석사와 박사를 각각 취득했다. 현재 부산광역시 문화재 전문위원, 충남대 시간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시상식은 7월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한편 불이회는 한국불교 발전과 재가불교, 여성불교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코자 1974년 창립된 모임이다. 이후 1986년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인재를 육성하고자 불이상(不二賞)을 제정, 불교발전에 기여할 유망학자와 선행 · 포교에 있어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를 포함해 총 88명이 수상했다. 윤호섭 기자

"피해자 명예회복 끝 아니다"

법난심의위 해단, 7월부터 문체부 소속 변경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지현)는 6월 20일 서울 인사동 동덕빌딩 9층 사무처에서 해단식을 실시, 7월 1일부터 문체부 소속으로 변경된다.

법난심의위는 2008년 12월 30일 10.27법난 관련 법령이 반포되며 출범했다. 당초 활동기한이 2010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법률을 개정,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윤호섭 기자

해인사, 김영환 장군 추모재

6월 20일 대적광전서… 200여 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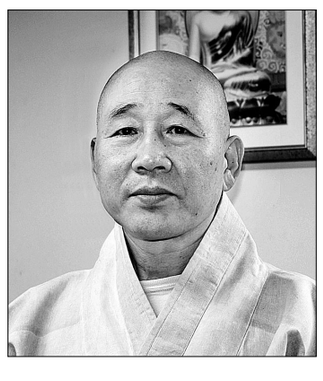
한국 전쟁 당시 해인사 폭격 명령을 거부하며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故 김영환 장군(1921~1954)을 기리는 호국추모재가 6월 20일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향적)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재에는 하창환 합천군수, 노병균 공군교육사령관, 최영훈 공군역사기록단장을 비롯해 공군 관계자들과,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다문화시대 '중도입국자' 개념조차 몰라"

Interview

마주협 신임 상임대표 정호 스님



"수도권 내에만 약 8000명의 중도입국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입국자에 대한 개념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불교계 이주민 지원 NGO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 신임 상임대표로 선임된 정호 스님〈사진〉이 6월 20일 기자간담회서 중도입국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도입국자'는 외국서 출생 후 부모의 재혼 · 취업 등으로 함께 한국에 입국한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 및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를 일컫는다.

"성장기에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온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이질감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부모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 등을 알려주고,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서지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마주협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006년 창립 후 이주노동자 인권 및 근로문제 등에 주력해왔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각 지방에 마련된 10개 이주민 법당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구체적 사업도 구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호 스님은 '불자 이주노동자를 위한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불자 이주노동자 복지센터'는 2012년 대선 당시 여당서 불교계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하루빨리 공약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계종 사회부 측에 협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종령기구로서 편입도 추진,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이주민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한편 정호 스님의 임기는 앞으로 2년이다. 공동대표는 진오 · 도제 · 지관 · 호산 · 정문 스님이 맡고 있다. 박아름 기자

만해 詩 '알 수 없어요' 작·편곡 첫 공연

선학원, 18일 국립극장서 제2회 만해예술제

'님의 침묵' 창작안무 선봬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입적 72주기를 맞아 스님의 유훈과 정신을 기리는 문화행사가 열렸다.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은 6월 18일 국립국장 KB청소년 하늘극장에서 '제2회 만해예술제'를 봉행했다.〈사진〉 '거짓의 시대, 만해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만해예술제는 새로이 선보인 창작 안무와 만해 시 창작곡 등으로 꾸며졌다.

이날 만해예술제에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비롯한 재단 임원진, 장로, 지역 범행단장 스님과 각 분원장 및 신도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법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님만이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라 하신 만해 스님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일련의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지러운 시대에 밝은 등불과 같았던 만해 스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의 가슴에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만해예술제는 제1부는 8개 분원 합창단이 마련한 추모합창제, 제2부는 새롭게 선보인 창작안무 등 시와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종합추모예술제로 진행됐다.

특히 한승석 중앙대 전통예술학부 교수는 음악가 정재일 씨와 함께 만해 스님의 시 '알 수 없어요'를 작곡과 편곡해 이날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입적 72주기 만해 스님 추모다례재는 오는 6월 29일 오후 4시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신성민 기자

"사찰서 우주탐험 꿈꿔봐요"

불교스카우트, 용인 법륜사서 항공과학캠프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6월 18~19일 용인 법륜사에서 '항공과학캠프'를 열고 대원들의 재능을 개발하는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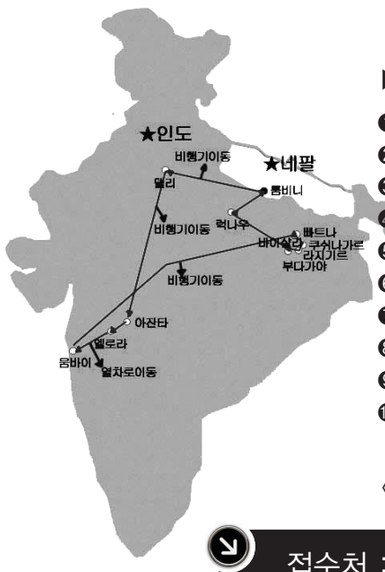
수도권 사찰 소속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항공과학캠프는 비행원리 이해 · 항공우주과학 미래 등 이론강의와 더불어 글라이더 및 에어로켓 만들기 등의 체험이 진행됐다. 윤호섭 기자

제108차 천룡사 신행기도회 동참 안내

2016년 12월 9일부터 ~ 21일까지 (13일 일정)

천룡사 신행기도회에서는 108번째로 맞이하는 신행기도를 부처님께서 탄생과 출가, 성도와 전법轉法, 열반涅槃에 드신 성지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갑니다. 108차 신행기도信行祈禱는 천룡사 주지 무등無等 스님과 함께 떠나며 인도印度 아잔타 석굴사원과 엘로라 동굴을 순례하는 거룩한 인연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천룡사 108차 신행기도회 부처님 나라 성지순례에 함께 하실 분들은 종무실로 접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행기도회 예상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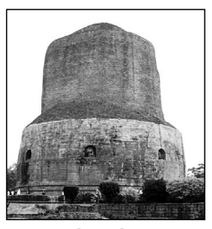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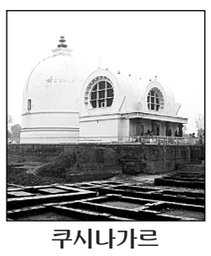
▶성지순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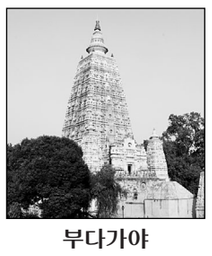
❶ 룸비니(부처님의 탄생지)
❷ 부다가야(깨달음을 얻으신 곳)
❸ 사르나트(처음 설법하신 곳)
❹ 쿠쉬나가르(열반에 드신 곳)
❺ 라즈기르(왕사성)
❻ 스라바스티(기원정사)
❼ 바이샬리(마지막으로 설법하신 곳)
❽ 상카시아(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신 곳)
❾ 나란다(불교 최초의 학교)
❿ 피르라화 : 카필라 바스투(사키아)족의 도읍지로 예상

〈인도 국내선 비행기 3회 이용〉


룸비니동산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부다가야

접수처 : 천룡사 종무실 062)234-1338, 010-8932-1825

제14회 대원상(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에서는 설립자인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하여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하여 제14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상세는 본원 홈페이지 및 월간 「불교문화」 공모 내용을 필히 참조 바람.]

● 포교대상

공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① 출가 부문
② 재가 부문

상금 : 총액 5,000만 원 이내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① 출가 부문
- 3인(곳) 이내 시상
-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는데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또는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② 재가 부문
- 3인(곳) 이내 시상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 콘텐츠대상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주제 및 소재)의 콘텐츠

공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① 텍스트 · 이미지 콘텐츠
② 오디오 · 영상 콘텐츠

상금 : 총액 4,000만 원 이내

* 오디오 · 영상 콘텐츠는 DVD나 USB 등으로 제출할 것.

※ 각 시상 분야에 대해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음.
※ 후보자 또는 후보 작품들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 ·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상 부문 및 상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절차

제출서류 : 제14회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양식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접수기간 : 2016년 9월 19일(월) ~ 9월 30일(금)

접수 및 문의처 :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주소 :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전화 : (02) 719-2606, 1855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시상식 일정 : 추후 발표함.

대한불교진흥원